

로컬리더스

군산시, 벼농사 종합평가회 개최

군산비농업기술센터는 28일 군산시 선 도농업인 및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150여명의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는 벼농사 전반에 대한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종합평가와 노동력 해소 및 병해충 방제시간 단축을 위한 농업용 드론 활용 기술시연을 펼쳐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기술센터 내 품종비교 시범 및 생력 재배기술 실증시험 포장 견학과 관내 육성종인 시범사업 단지에 대한 현장평가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 군산시 벼농사 주요성과로는 우량종자 748톤 공급, 전면적 노동력 절감 농작제 지원(상토, 맞춤형비료, 육묘상처리제), 주요 병해충 발생 최소화(12.5%), 과학형 농기계 지원(살포질분사, 유해물질분사, 토양검정사비치방) 등을 꼽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경찰서, 노후 교통시설물 교체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지역에 설치된 신호기의 안정적인 신호 연동체계를 유지하고, 신호 철주 및 제어기의 고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시설물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나섰다.

이번에 교체된 시설물은 현대코아 사거리, 경포초교 사거리, 잠두 삼거리 등 약 6개소이며 신호철주 및 제어기 전선 등에 대해 교체가 이뤄졌다.

교체대상 교체받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관계기관 현장점검을 통해 노후 여부, 시급성 및 한국전력에 누전검사를 요청한 후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개선했다.

특히 군산지역은 해안도시의 특성상 염기어 따른 부식이 빨리 진행이 되고 철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땅을 파면 점토질이나 나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노후신호기 및 제어기를 교체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우수향토기업 인증서 수여식

익산시가 2016년 익산시 우수향토기업으로 9개 기업을 선정하고, 28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익산시 우수향토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시는 경영평가, 기술품질 평가 등의 정량평가와 기업성장 잠재력,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의 정성평가 등을 토대로 기업을 선정했으며, 익산시에 소재한 업종별 기업체 수를 감안하여 업종에 따라 선정기업의 수를 안배했다.

올해 선정된 익산시 우수향토기업은 ▲(유)침석석 ▲천일석재 ▲전일염공(주), ▲지(주) ▲성영향직(주), ▲(주)경원상사, ▲세광폴드, ▲대일일업, ▲오켄 케이블 주식회사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 및 인증현판 제공, 경영개선 보조금 지원,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이차보전 1% 추가 지원, 익산시 기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보건소, 10월 4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

군산비보건소(소장 전형대)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0월 4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은 10월 4일부터 만75세 이상(1941년생) 무료 접종대상자를 시작으로 10월부터 만85세 이상(1951년생), 13~14 일에는 우선접종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장애인 1·2·3급, 기초생활수급자 1·2 중, 사회복지시설생활자)이다.

17~19일에는 만세~35개월 영유아와 임신부, 20일부터는 일반인의 순서로 실시되며, 유료 접종비는 36개월 미만은 7000원, 36개월 이상은 7500원이다.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가까운 지정 병·의원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

유료접종은 적정인원에 대한 안전접종을 위해 동별로 날짜를 지정해 진행되며, 해당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군산시 보건소로 방문하면 된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복지허브화 주민설명회

현장중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나눔공동체 실현위해 추진

익산시·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8일 오전 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읍면동 통·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공무원,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읍면동 복지허브화 주민설명회 및 희망동행 후원 협약을 개최했다.

희망동행(希望同行)은 익산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식 명칭으로 '이웃에게 희망을 주고 더불어 행복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읍면동이 복지허브화를 통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로 개편돼 시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행정복지센터로 거듭나고 있음을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이웃이 이웃을 돕는 따뜻한 나눔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김진성 복지청소년과장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개요 설명을

시작으로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보조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 희망동행 후원모금 협약식, 투게다관 산 나눔문화재단 강위원(姜偉勳)강사의 '마을복지, 자치로 풀다' 특강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됐다.

익산시,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합일읍과 합일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읍면동 대표) 각 기관의 대표는 협약식을 갖고 나눔지원 발품을 통해 지역의 복지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데 상호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이후 29개 읍면동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모두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겠다는 피켓을 들고 결의를 다지며 민관이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시민이 주인 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는 민과 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시민 누구나 행복한 품격 있는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사람'과 '관계' 중심의 마을공동체가 되살아나기를 희망하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9월 현재 오산면 외 7개 면동을 복지허브화하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0월에 합일읍이 추가 추진된다.

정부 계획보다 한 해 앞당긴 2017년까지 전체 29개 읍면동을 복지허브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복지 제고도 향상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장양원기자

도내 최초 건축협동조합 익산서 출범

내년부터 공동영업·설계·감리·유지관리 등 조합 업무 시작

건축협동조합이 전북 최초로 익산에서 출범했다. 익산건축협동조합 발기인 11명(대표 현주익)은 28일 오전 송학동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조합 출범을 알렸다.

익산건축협동조합은 올해 12월까지 협동조합운영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공동영업·설계·감리·유지관리 등의 조합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건축협동조합은 기존 개인 또는 법

인건축사무소들은 현행대로 개별 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사인의 자율적인 합약형태 영업 및 업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개념으로 운영된다.

현주익 익산건축협동조합 발기인 대표는 "공동영업, 공동설계 개념의 협동조합 결성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창의력을 발휘하고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정현울 익산시장은 "건축사 조합을 구성해 건축설계·감리업무를 협업하여 설계·감리의 질을 높여주길 바란다"며 "개별 건축사들의 지식과 역량을 공유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재능기부와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 건축문화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원광대학교병원, 의무기록 충실 작성의사 포상

원광대학교병원이 지난 27일 문화센터 5층 회의실에서 2016 상반기 의무기록 충실 작성 의사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원광대병원에는 환자 관리의 기본이 되는 질병과 치료 및 예후에 관한 의무기록들이 충실하게 기록, 정리될 수 있도록 의사를 독려하고 의료정보관리위원회에서 선정 한 의무기록 충실 작성 여부 결과에 따라 년중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포상을 실시한다. 의무기록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수상을 통해 선정된 2016 상반기 수상자는 내과계 이혜준(내과), 임현(내과), 이태경(소아청소년과), 외과계

정재환(신부인과), 김민규(외과) 등 5명이다.

의무기록 충실 작성 의사의 평가 기준은 환자수·재원일수 대비 퇴원 미비기록 발생건수, 재원환자 미비기록 발생 건수, 현재 미비기록 건수, 미비기록 발생 후 작성의 신속성 및 협조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김정우 원광대병원 의무기록관리위원장은 "모든 의사가 환자 의무기록 관리를 최선으로 다하기만 하면 일정 속에서도 더욱 철저하게 기본을 지킨 의사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포상일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1위

군산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지난 27일 임실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전북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도내 15개 시·군의용소방대원, 도지사, 도의원, 유관기관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안전·나눔·행복'을 테마로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대응능력 향상과 지역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소방기술·체력·화합을 위한 마련된 한마음 행사로 각 시·군 의용소방대

원들의 소모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심폐소생술, 소방호스 끌기, 방수자재 등 5종목에서 인간힘을 쏟으며 갈고 닦은 기량을 한껏 뽐내며 참석자들이 한바음이 되어 돈독한 유대 및 조직 화합 결속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의용소방대장(이종복)은 "의용소방대의 자긍심을 갖고 지역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간여행축제 방문 관광객 할인 서비스 제공

군산시는 시간여행 축제기간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역 업체 45개소의 할인쿠폰을 제공해 할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군산을 대표하는 맛집, 숙박업소, 레저, 체험업소 등 45개소가 참여해 시간여행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5~55%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할인업체 45개소는 맛집 10개소(군산회집 등), 제과점 3개소(영국빵집 등), 숙박업소 12개소(리비디호텔, 리비디관광호텔, 애플트리관광호텔, 타워팰리스관광호텔 등), 테디베어뮤지엄, 새만금갈조새상설공연장, 레저 4

개소 선유스카이센터 등), 판매점 2개소, 참숯칼링스파 등이다.

축제기간동안 참여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방문객들은 시간여행축제 운영본부에 비치된 할인쿠폰을 받아 업체에 제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방문객, 지역업체, 군산시에 삼박(三樂)을 주고자 방문객은 할인서비스를 통한 군산여행의 즐거움을, 참여업체는 홍보와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군산시는 방문객들의 만족도 상승으로 명품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 인화지구 행복주택 612세대 입주자 모집

익산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북 최초의 행복주택인 '익산 인화지구 행복주택' 612세대의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인화지구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 228세대, 26㎡ 184세대, 36㎡ 200세대 총 61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할량의 80%를 취약 노인계층에 공급할량의 20%를 공급한다.

인화지구 행복주택은 입주자 계층을 고려, 맞춤설계를 하여 전용면적 16㎡ 228세대를 대상으로 독신가구의 입주자를 위하여 냉방고, 책상, 옷장, 가스쿱등을 빌트인하여 입주자의 추가 부담을 줄였고 젊은 계층을 위

한 다목적 룸, 와이파이존을 설치하여 편리성을 높였다.

단지 내 주민커뮤니티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무인택배보관함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입주자들의 질과 만족도를 높였다.

입대조건은 공급계층별로 달리 적용되며 주변 시세보다 20~35% 저렴한 수준으로 공급하며 임대보증금은 전북은행 농협 등과의 협약체결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에게 대출을 지원해줄 계획이고 대학생 사회초년생(신난근기자),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거주기간은 기본 5년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한국 야생화 전시회 내달 3일까지

야생화·분경 130여점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늘부터 내달 3일까지 한국 야생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군산꽃사랑연구회회원들이 정성껏 가꾸온 야생화 및 분경 130여점을 박물관 3층 로비에서 전시한다.

군산꽃사랑연구회는 사라져가는 야생화를 널리 보급하고 농촌문화 창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난 2005년 설립된 단체이다.

이들은 군산지역의 자생풀꽃 식생 형태 조사 및 보존 활동, 야생화 기르기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분경전시회

및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화려한 서양꽃에 느낄 수 없는 소박하면서도 고귀한 자태를 지닌 소중한 우리 꽃을 통하여 가을의 향취를 뽐낼 담아갈 수 있는 전시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